



“진언밀법 흥포 거점역할 기대”

부산 덕화사 헌공불사 원만 회향



▷부산 덕화사가 11월 23일 서원당에서 헌공불사를 봉행하고 있다.

충지중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가 11월 23일 서원당에서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사원의 스승과 교도, 지역인사 등 전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공불사를 성대히 봉행했다. 이날 헌공불사는 본존제막을 시작

으로 육법공양, 개식사, 대비로자나 불전 호념, 헌공사, 종령법어,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헌공사에서 “이 전담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원력있는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무진사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재원만한신 범신불의 도량, 일체 유정들의 복덕의 원천, 고택중생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덕화사가 미래세가 다 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고, 종상들에게는 무진등

이 되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덕화사는 일찍이 부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대중교화의 꽃을 피워왔던 곳”이라며, “신심깊고 역사 깊은 덕화사가 비로자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통의외장 원승 정사, 사감원장 지성 정사, 동해중학교이 사장 의강 정사, 법감원장 법공 정사, 전일 통리원장 해암 정사, 덕화사 주교 대원 정사, 한나라당 최병

진 씨, 부산시의회 조춘자 의원, 덕화사 교도대표 윤숙희 씨 등 내외귀빈이 대거 참석했다. 덕화사는 대지 296평, 연건평 343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불교전통건축양식에 종단 고유의 아자관과 만다라, 외부단청 등으로 장엄, 종단사원건축의 일대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 2004년 12월초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11월에 완공된 덕화사는 부산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향후 경남지역 진언밀법흥포의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월 1일, 종립 동해중 해오름관 완공법회 전문,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

충지중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는 12월 1일 해오름관 완공법회를 봉행했다. 해오름관은 5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대지 159평, 연면적 392평으로 1층 주차장, 2층 미술실, 모듬 학습실, 3층 과학실, 생물실, 4층 기숙실, 5층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한다. 해오름관은 종단의 지원금과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지난 2001년부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 1층과 2층을 완공하고, 2005년 3층과 4층

일부 완공, 2006년 4층 일부와 5층을 완공하였다. 동해중학교는 그동안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전문화,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해오름관이 완공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 12월 1일 봉행된 해오름관 완공법회는 충지중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의강 동해중 이사장, 교육청 관계자, 동창회,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사원서 수능시험일 불공법회

충지중은 지난 11월 16일 전국사원에서 대학합격 발원 수능불공을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는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학부모와 스승, 교도들이 동참하여 봉행했다. 오전 8시에 천도불공으로 시작된 수능불공은 오후 6시 수능시험을 종료하는 시간까지 부처님의 원력으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진행되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 교도는 수능시험일 당일 회향하는 100일 불공을 정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원당에 나와 자녀의 대학합격을 발원하는 불공을 올리기도 하였다. 수능시험 불공을 회향하는 학부모는 “이번 수능불공을 올리면서 물론 자녀의 대학합격을 발원하였지만 수험생을 둔 자녀 덕분에 100일 동안 서원당에 나와 불공을 하는 가운데 자신을 정리하고 참회하

는 시간이 되었다”며 “수능불공을 통해 불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을 비우는 참회를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나의 자녀가 소중하듯 타인의 자녀들도 소중하다는 공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여 무사히 회향할 수 있는 것은 다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밝혔다.



▷충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해오름관 전경

충지중보

종교윤리와 경제윤리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주위의 시선이나 상대방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난무하고 있다. 경쟁만을 부추기는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경제구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켜 윤리라는 단어가 경제에는 애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윤리와 경제윤리가 잘 조화된 경우 그 나라의 경제는 발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서구의 직업윤리는 기독교 윤리에 근거하여 노동은 신에 대한 봉사로 파악하며 게으름과 대만은 모든 약의 원천으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결과 서구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동양에서는 동양전래의 유교 윤리에 서양의 자본주의 경제윤리가 적용되어 ‘동아시아 자본주의 정신’이 발생하였다고 허버드대 교수이며 유교사상의 권위자인 투 웨이 밉교수는 주장하며 이를 ‘신유교 윤리’라 칭했다. 신 유교 윤리는 개인주의적인 유행의 윤리와는 달리 가정, 기업체, 국가 등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의무, 책임감, 헌신, 등을 강조한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경쟁보다는 구성원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개개인의 성장과 기강, 조직체의 화합과 협동정신을 강조하며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인적 자본의 형성이 용이하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이런 정신을 통하여 고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서구문명의 도입으로 발달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불교윤리도 있다. 그것은 보시와 회향이다. 불교의 경제윤리는 재물의 축적 목표는 사회적 불리증진, 즉 사회적 회향에 두고 재물의 보시는 인간의 신성함 의무를 규정함은 재물의 효용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달의 종교법설

불공 중에 오는 마장을 현실로 막지도 않고 만약에 진리로써 막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겠는가. 만약 상지상승 사람들이 삼법판으로 보리심의 대용기약을 얻은 것만으로써 일체번뇌를 극복하여 능히 불경을 성취하되 요망의 중생은 삼성이 승성되고 삼독이 고질되어 있는 고로 명에 의해 약 안주되고 이전에 약 안주된 시련고 못이긴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실천하는 동해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이며 사명인 청소년을 위해 가슴에 미래를 심어주는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동해중학교 이사장 김현우
 관리위원장 황우승
 교장 박수현
 운영위원장 정관호
 학부모회장 권점숙
 총동창회장 김수호

충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사설

정보화시대 포교의 다양화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이다.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 매체를 통해 법회도 볼 수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보화의 물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매체를 만들고 낡은 매체는 도태시키며 도도히 흐르고 있다.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도 한 달이 지나면 기능이 다양하고 새로운 기종이 탄생하고 오래된 기종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한국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도 새로운 외부 물결에 동조하며 가치관과 의식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종교만은 변화를 싫어한다. 과거의 형태만을 집착하고 고집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물결에 종교도 변화를 거부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변화에 거부한 종교단체 수장들이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도태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수 많은 종교단체 중에서 신도 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공통점은 정보와 시대의 물결에 적응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포교방법과 신령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올해 말이면 네트워크가 글로벌하게 확장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방송과 통신, 생생공학과 IT기술, 이동전화 속에 TV, MP3 속에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이 경제가 무너지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 즉 기능과 역할의 통합화를 이루는 유비쿼터스 물결이 도래한다.

종교단체도 시대변화에 맞도록 모든 것이 통합되고, 편리해진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한 수행체제와 포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비즈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그것은 '인간중심'이라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사용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용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화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유비쿼터스의 기본 철학인 것이다.

종교단체도 가만히 앉아서 신도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공급자 위주의 포교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찾아가는 포교활동, 즉 신도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상의 메일링을 통해 행사의 안내와 참가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포교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법회식 청각적인 감각만을 제공하지 말고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화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쉽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은 복잡하고, 파란만장 공간과 시간을 싫어한다. 이들에게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고방식에 적합한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은 넘쳐 나는 정보에 마음이 빼앗기고 명리(名利)를 잡는 일에 눈이 멀어 자아의 실상은 알지 못한 채 살아내고 있다. 이들에게 내면을 비우고 자기 본분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이 불교 본연의 자제인 것이다. 마음을 지극히 진실하게 생활해 나가면 자기와 세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相生)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불법을 제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종립 동해中, 학예제 '어울림마당' 개최

동해인의 氣와 禮의 잔치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생들이 창작한 작품과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교수, 학습 및 특별활동을 통해 가꾸어 온 동해가족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소중한 자리, 자랑스럽고 동해인들의 기와 예의 잔치가 펼쳐졌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는 지난 11월 23일 본교 운동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동참한 가운데 학예제와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탐색하여 각 분야에 소질 있는 학생들의 특기를 개발시키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량 개발, 다양한 전통체험으로 주체성과 창의성, 협동성을 기르며,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체력증강에 이바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부 사물놀이 공연, 추곡대회, 이 어달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널

뛰기, 팽이돌리기의 전통놀이, 제2부 학생 작품 전시회, 사진전 문화행사로 열렸다.

전통놀이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동참해 상호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전통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동료 친구들을 초청하여 동해중학교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에게 모교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

동해중학교는 그동안 학예제와 어울림 마당축제 개최를 통해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재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알림방

총지종 참교절 행사가 12월 24일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행됩니다. 화령 교육원장이 불교방송 (아름의 향기) 코너에서 법문을 합니다. 방송일시: 12월 4일에서 7일까지 매일 오후 3시 50분.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앙코르 공연

총지종 합창단 8명 주요배역 맡아 열연



◇바리오페라단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공연 모습.

불교 최초 오페라단인 바리오페라단이 11월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관현악을 위한 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앙골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오페라에서는 총지종 합창단원 8명이 배역을 맡아 열연했다. 주요배역인 미라, 알라발리 역을 맡은 합창단 지휘자 김양희 씨는 "지난 두달 간의 고된 연습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공연을 통해 불교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내용으로 한 오페라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효경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교수가 작곡을 맡은 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단상과 상상, 깨달음의 여정, 열반을 향하여, 등 총 3막으로 나뉘어 아수다라와 아난다가 고백하는 형식으로 엮여 있다. 지난해 10월 성공리에 공연됐던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창작 활성화 지원작품으로 선정, 올해 앙코르 무대에 올려졌다. 한편, 불교총지종 우송 통일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음악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내용으로 한 오페라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상사는 이야기

헤어지기 싫어 끝내 가지 않겠다던 가을이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던 나뭇잎들도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가을이 늦게 시작되었다. 나뭇잎 한 두 잎이 물들기 시작하니 어느 틈엔가 내기라도 하듯이 모두 모두 물들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어느 누가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말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다음 계절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때로는 가슴서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하기도 한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산!

나뭇잎에 누워란다. 아주 작은 가늘프고 외로운 꽃 한송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뭇잎이 가을 산에 외롭게 핀 꽃. 너무도 예쁜 가을 아름다움에 취해 한참을

들여다 보았다. 가을은 하나를 쫓는 가을을 지녀,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내 인생을 돌아 본다. 허둥지둥 달려온 인생 어느 노릇일까의 가사처럼 "생를 마감할 때 내 인생에 후회는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름없는 들꽃을 닮고자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보며 나는 초조해진다. 내 인생에 아직 이렇다 할 아무 다른 흔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 지금 무서운 준비를 해야겠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을 모르겠다. 아마 끝까지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산 것 같

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울긋불긋 물든 나무를 본다. 나무 어디에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간직하고 있다가 가을에 맞추어 일제히 예쁜 물감을 칠 했을까? 정말 위대한 일이다! 어느 예술가가 나무의 재주를 따를 수 있겠는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빛

을 발하는 나뭇잎들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사라진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후회는 없었노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지금 TV나 신문을 보면 예전에 영화배우였으나 말년에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의 어린이들을 위해 생의 마지막 날까지 봉사한 사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서 평생 의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이따간이 틀림없이 아무렇게나 핀 꽃들. 그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정교한 아름다움인가?

욕심과 자만, 야망 이 모든 것을 멀리한 채 누가 보지 않아도 저 혼자 열심히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욕심없는 삶, 이런 삶도 후회없는 삶이 아닐까? 나도 욕심을 버리고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까운 가을 산을 찾아 이름 모를 많은 들꽃과 꽃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마음껏 느끼고,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나무들에게 찬사를 보내 주고 싶다. "그들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 백영조 보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6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names and amounts for donations to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Includes a list of names like Shin-yeon Han, Kim Mun-soon, and others with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amounts.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월별 경우 회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는 7668610
4. 후원금 계좌: 7668610
5. 후원금 문의: 122-177171-13-104
6.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진정한 보시는

용서



웃음을 짜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탁발을 하시는 부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실타래 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얗은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실타래를 받아 드신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입고 있는 가사를 벗어 들고는 실타래의 실로 해진 곳을 꿰매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받으려 베풀었다는 마음도 받겠다는 마음도 없을 때 진정한 보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관성(풍경소리 후원회장)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나에게 깨달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이니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한 생각만 고쳐 잡아도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상대방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발원한 용서와 화해가 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연꽃 봉우리가 터지듯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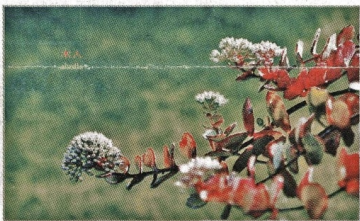
이달의 명상

기대만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가 자기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 다고 애 태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가 자기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 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가 자기의 한계이고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릴교

~천수경면 제 10화~

대성사님, 그렇다면 "올아라남아라다"의 뜻은 무엇인가요?

헛! 알 주제에 별걸 다 알려고 하네.

알았남?

알았다네

"올"은 몇 번 말했다시피 모든 진언의 첫머리에 나오는 정형구라고 했지요?

"올"은 최상의 진언이며 두려움을 설복 시켜주는 진언!

하하하! "올아라남아라다"의 "아라남"은 무정삼매(無情三昧)라는 뜻이며 "아라다"란 만족이란 뜻이랍니다.

대성사님, 만족이란 말은 잘 알겠는데 무정삼매란 무슨 뜻인가요?

무정삼매, 즉 아라함의 의미는 싸움이 없는, 마음의 갈등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함의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라다이며 뜻은 만족 이랍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실 적에는 갈등과 번뇌가 없는 고요하고 통일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경전공부나 기도를 드릴 적에 그 뜻이 원만성취되고 결과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있겠지요.

잡념없는 아라함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적에 그 뜻이 원만성취 된다는 말씀이군요.

다 함께 해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를 하는 율하는 은 정성을 들여 잡념 없는 아라함의 상태로 일한다면 꼭 성취될 것입니다.

아라함-아라다-라니까 저러네.

알았남?

알았다!

하하하

정수일홍피-ht tp://home.paran.com/octagonp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회 양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주요사업내용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강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령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지용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인국불교미술

'불교회화'

I. 불교 회화의 뜻

불화는 좁은 뜻(狹義)과 넓은 뜻(廣義) 등 두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절의 법당 같은 곳에 모셔 놓고 예배하기 위한 그림, 이른바 존상화(尊像畵)만을 불화라고 보는 좁은 뜻과 존상화 이외에 불교도나 이교도를 교화하기 위한 갖가지 그림이나 절의 장엄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단청같은 여러 가지 그림들까지 하여튼 불교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일체의 그림을 통틀어서 불화라고 보는 넓은 뜻 등이다.

II. 기원(起源)

불화의 명확한 기원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불화도 불교 조각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성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초기의 것으로 남아 있는 예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의 불교 사원에 불화들이 그려졌던 사실을 여러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근본설일제유부비나야잡사 제 17(根本說一切有部現那迦雜事 第17) (新修大藏經 47, 律部 3)이나 동(同) 제 38같은 데에서는 불교 최초의 사원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불화를 장식하는 사연이 보인다. 여기서 는 사원의 건물이나 용도에 따라 불화를 각기 다르게 그려던 것이다. 주로 약사(藥叉), 본생담(本生談), 불전도(佛傳圖), 해공 등 교훈적이고 장엄적(莊嚴的)인 그림을 그렸을 뿐, 불화의 예배 대상인 존상화(尊像畵)들은 아직 그리지 않고 있다. 물론 이 경전의 말대로 부처님 당시부터 기원정사 같은 사원에 불화들이 그려졌다고 꼭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초기 사원에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장식적이거나 교훈적인 그림은 있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고, 이 경에 말한 대로 불화는 적어도 B.C. 2-3세기 경부터 는 인도의 불교 사원에 그려졌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불화는 아잔타(Ajanta)의 벽화들이다. 그러나 이 불화들은 B.C. 2세기 경의 작품들이어서 부처님 당시 또는 초기 불교시대의 불화들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물론 초기의 불화들이 틀림없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당시 사원들의 쇠멸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B.C. 2-3세기 경의 탑조각(塔彫刻)에서 보거나, 경전에서 보이다시피 초기 불화의 주제는 불전도나 본생도 같은 교화적인 불화들이 분별할 것이다.

III. 재료

불화를 만드는 재료는 대개 흙(土), 나무(木), 베(布=織維), 종이(紙), 금속(金屬), 돌(石)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재료의 성질에 따라 흙바탕(土本), 나무바탕(木本), 베바탕(絹本, 麻本, 苧本 등)...

의 불화로 나누어지며, 이 바탕의 소재에 따라 불화의 기능은 물론, 교리적인 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존이나 유행 등에도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 재료의 성질이 불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화는 재료의 성질(바탕)에 따라 그 기교도 달라진다. 기교 흉이나 돌, 나무 같은 것이면 대개 벽면(壁面)이나 지붕을 구성하게 되므로 여기에는 전



보물 제1257호 청룡사영산회괘불탱(靑龍寺靈山會掛佛幀)

정화(天井畵)나 벽화(壁畵)들이 그려지게 되고, 종이나 베 같은 것이면 탱화(幀畵)나 경화(經圖)등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IV. 쓰임새

불화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다. 첫째로 불교를 장식하면서 또한 우러러 보이게 하는 장엄용(莊嚴用)과, 둘째로 일반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해 주고자 그린 교화용(教化用), 셋째로 의식 같은 때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용(禮拜用)들이 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용도가 엄격히 분리되어 쓰이는 예는 극히 드물고, 그 용도를 서로 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다.

(1) 장엄용 불화(莊嚴用佛畵)

불교미술, 특히 조각이나 회화같은 것은 불탑이나 불전(佛殿) 또는 그 밖에도 신성한 건조물을 장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조각은 불상의 출현으로 차츰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화는 예배상의 성격 보다는 장엄적인 성격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셈이다. 기교 후불탱화나 후불벽화 같은 것은 본존화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 보다는 본존상을 장엄해 주는 뜻이 더 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의 장엄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 꾸민(飾)는 뜻도 있지만 그 보다는 종교적인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嚴)는 뜻이 더욱 짙다.

장엄화의 대표적인 예는 천장이나 기둥, 벽면에 그린 단청이나 벽화 등이다. 그 내용은 도안적인 무늬가 대부분이지만 상(像)이나 서주(瑞靄), 서수(瑞獸) 등을 그리는 경우도 많다.

(2) 교화용 불화(教化用佛畵)

성스러운 불교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이로 하여금 교리의 이해는 물론 신성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사원의 벽화로 불생도나 불전도같은 설화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 일반 대중들이나 초인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교 교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불화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이 그려졌는데 팔상도(八相圖)같은 것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지옥의 여러 가지 유형을 그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어떤 지옥에 떨어진다든 지옥변(地獄變), 가령 사왕명(十王名)이나 우란분경변상행(五藏盆經變相續) 같은 것이 많이 그려졌는데, 이들은 죄를 두려워 하게 하는 좋은 교재가 되었다. 이외에 착한 일을 하면 내세에 좋은 곳(도솔천이나 西方淨土)에 인도된다는 내용을 그린 미타래도(彌陀來迎圖)나 미륵래도(彌勒來迎圖)같은 것은 권선의 좋은 교재였다. 영산회상도(靈山會相圖)같은 설법그림도 이 범주에 속하며, 본존불의 후불탱화나 후불벽화도 역시 일종의 교화용으로도 쓰였다.

특히 어느 특정한 경전의 내용을 변상으로 그린 변상도(經變相圖)들은 교화용 불화의 표본으로, 각 장마다 그림과 글이 동시에 표현되었거나, 각 권의 앞에 압축 묘사되는 경우 등이 있다.

(3) 예배용 불화(禮拜用佛畵)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에는 예배를 위한 본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원의 경우 불화를 예배용 본존으로만 사용한 경우는 드물다. 불전의 후불탱화나 벽화들은 장엄적, 교화적인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예배회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법당 안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회가 있다. 이런 경우 목에서 거행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는 본존불상을 불안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화를 본존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불화를 흔히 괘불(掛佛=掛佛圖)이라고 한다. 이것은 보통 수미터 내지 수 십미터나 되는 거대한 것으로 절 마당에 설치한다. 법당 앞뜰의 들로 된 당간지주에 여기 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특히 인왕도량(仁王道場) 같은 수많은 도량에 각기 그 회도(會圖)가 있어서 밀교적인 수법(修法)에 사용되었다

총지동의보감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



김장규 원장

뇌졸중이란 소위 "중풍"이라고 일컫는 뇌혈관질환을 말하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5명으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7만 여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현재 약 2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가장 흔하고 익숙한 것이 반신불수 등 사지의 운동장애가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자 자신이 나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각종 언어 장애이다. 뇌졸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언어

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

실어증(Aphasia)

뇌졸중 환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인지 능력 결함은 실어증이다. 뇌졸중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뇌 혈관 장애 시와 때부터 실어증을 볼 수 있으며 첫 4주 동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호전되나 많은 보고에 따르면 병세가 교착된 후에는 발병 전 상태와 같이 언어를 구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환자는 때로는 몇 년 걸리면 언어치료와 관계없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실어증의 치료는 각 환자의 손상의 정도와 잔존하는 언어 능력에 맞게 되나 각 환자가 당연하고 있는 문제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치료는 각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치료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각각 특수 치료 과정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일반적 치료 원칙이 적용된다.

실행증(Apraxia)

발성, 발어에 관여하는 근육의 운동 마비, 근력저하, 실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말하려 할 때 나타나는 구음 장애, 말의 속도, 리듬, 억양 등의 장애에 대한 총칭이다. 의도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말할 때는 장애가 보통 없을 수 있다. 구화의 실행증은 음성과 구화를 위한 수준 높은 치료를 강력히 실행하여야 하는데 Rosenbek 등의 8단계 치료 과정 등을 시행한다.

늘어증(Dysarthria)

뇌졸중 환자에서 연수 증상이 있을 때 뇌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준비가 되어도 말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하는 근육, 즉 혀, 구개 근육, 인두 근육 등이 정교하게 작용하지 못하여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이다. 치료는 녹음기와 거울을 사용하여 환자가 기록된 스스로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판단하여 필요하면 거울을 보고 치료자의 입의 움직임을 자기의 것과 비교하여 따라 하게도 한다. 발성 근육이 약하면 저항운동으로 근력을 강하게 하며 조화가 안되는 환자는 구화 속도나 구화 근육의 운동을 교정하는 운동을 시행한다.

죽비소리 어려움을 정신으로 극복한다

주로 목 부근에서 정진하는 자에게 행복은 약속되리라 굳이 행복을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은 오지 않는다. 배우기도 허물을 버리는 것도 재가하여 의진이 불일치한 이와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즐거움을 얻기도 또한 어렵다.

비록 험하고 능력이 있어도 게을러서 일어나 정진하지 않고 결심이나 신념이 약한 사람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출가하여 세속을 떠나는 것도 나그네의 락방도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오로지 정진만이 필요하다.

법구경, 중에서

Visual Communication Advertising design Editorial design



기획 인쇄물 전문

- 광고기획
- 홍보전단
- 카타로그
- 브로슈어
- 리플렛
- 팜플렛
- 사 보
- 서적류(양장, 무선)
- 다이어리
- 명부(수첩)
- 쇼핑백
- 각종봉투
- 카렌다
- 앨범
- 샘플북
- BOX류
- 행가,행택
- 스티카,라벨
- 청첩장
- 연하장
- 메뉴얼
- 현수막
- 스탬프,트로피
- 판촉물

기타 일반인쇄물 및 광고 판촉물 일체

사무실 / 디자인실
서울·중구 인현동 1가 124-3호
호수빌딩
TEL : 2277-2900(대), 2277-3639
FAX : 2277-3668
H.P : 018-361-9663

공장
서울·중구 인현동2가 215
TEL : 2265-5356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ID-dong455667
PW-455667

동림기획
Orient Communications
代表 金東雲 (佛名:修正)
관성사 교도

지상설법

동양 삼국의 평화적 가교로서의 불교도의 역할



황명정사 (종교교육원장)

지난 10월 26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을 정리하였다.

2000여년 전에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불교는 중국인들의 사상적 수준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의 융합과 다채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명승고적들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 이룩한 학자와 문인들이 불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 봐도 불교가 중국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적 중 70% 이상이 불교와 관련된 것들로 과거의 찬란했던 한국의 문화유산은 실로 불교

가 없었으면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고대 일본의 사상과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혜자(惠慈)스님은 일본의 성덕대자(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어 불법을 전수함으로써 일본이 불교국가 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징(曇徵)스님은 불교뿐만 아니라 채색이나 종이 제조, 먹, 팻줄 등을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수하여 일본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백제의 성왕이나 위덕왕 등도 일본에 승려를 파견하여 불법을 전수했으며 사찰 건축이나 불상 조성 등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여 일본의 불교문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 마디로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한국의 불교는 일본으로 전래되어 일본의 사상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는 중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사상과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켜 각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불교는 대중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중의 가슴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불

교의 영향은 그 어떤 사상보다도 심원하고 지대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고해에서 신음하는 많은 무명중생들에게 구원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양 삼국의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한중일 사상 문화 발전 공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가 성립되어 한중일 삼국 간의 황금유대를 강조하며 교류한 지 어느덧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이러한 교류와 유대를 통하여 한중일 삼국은 이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일 삼국의 불교계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세 가지 우선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불교가 대중들에게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민중을 지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원을 강하게 짓고 불상을 조성하여 대중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중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불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이 대중

과 사회를 움직이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수행은 개인의 성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성불에 매진하다 보니 일반민중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소승적인 불교가 되었고 그래서 대중불교가 등장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대중불교를 받아들여 많은 대중들을 출몰한 방편에 의하여 불법의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의 교육과 종교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 계통의 종교들은 대중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면서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에 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삼국 불교계도 대중들의 고통과 종교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자각하고 원래의 대승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교가 민중을 지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불교가 더욱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재 양성에 삼국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사는 훌륭한 인재가 앞장서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불교에 대한 소양뿐만 아니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자의 특기를 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학이나 음악, 미술, 건축, 복지 등 사회 각 방면에 조예가 있는 불교지도자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통하여 대중들을 불교로 이끌어 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중과 사회에 관심 증대해야

다른 종교는 종교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대중들과 친숙해짐으로써 그들의 종교를 확산시키는 가교의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불교의 어려운 교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폭 넓게 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삼국 불교계는 더욱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서로 인재를 교환하여 육성시키고 그들의 전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중일불교교류회의는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삼국 불교계가 더욱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

고 삼국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중일 삼국은 자비와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라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교나 도교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국간의 가장 뚜렷한 문화적 공통점을 들고자 하면 역시 불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우의를 더욱 다지고 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교라는 훌륭한 정신유산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 사상적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우리 한중일불교교류회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삼국의 불교계는 민중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이들의 지도와 변혁에 참여함으로써 불교가 더욱 확산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서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불교의 확산은 물론이고 동양 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대중들의 사상적,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한중일불교교류회의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요약)

이달의 설법문안

참회와 원력으로 부처님을 맞이하자

불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참회이고, 둘째는 원력이며, 셋째는 실천입니다. 참회란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것이요, 원력이란 불자로서의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이며 실천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라달행입니다.

불자여러분! 참회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 참회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 참회입니다. 현실적 참회는 불교에서는 사찰(事懺)이라고 하고 본질적 참회를 이참(理懺)이라 합니다. 현실적 참회에는 크게 열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정당하고 올바른 행위를 통해 무한한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지어온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 것을 삼악참회라고 합니다.

사찰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슬한 시간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생명을 해쳐 왔습니다.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생의 죄업을 참회하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중생들은 슬한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남의 소유물을 훔쳐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은 바야흐로 우리가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작일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소유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을 저버린 죄업들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사음죄(邪淫罪)라고 합니다. 사음죄란 일차적으로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도 일종의 사음이지만 이는 이차적 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 남편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사음죄를 참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슬한 시간속에서 많은 거짓말을 해 왔을 것입니다. 이를 참회하는 것이 거짓말의 참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데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을 최대의 거짓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을 살다보면 정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일을 위하여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아첨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첨이란 뒷사람에게 알량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을 짓누르고 빼기는 것도 아첨죄에 해당합니다. 언제나 정의편에 서서 불의를 보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속은 텅 비었으면서도 겉으로 밀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는 것은 남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섯째, 이간질의 죄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이란 이미 두루 아시다시피 잘 어울리고 있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째, 악담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한결같이 입은 재앙의 문이니 잘 막아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네가지 중생의 교화법(四攝法)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써 교화하라(愛語攝)'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불자여러분! 우리는 슬한 세월에 걸쳐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왔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아무리 큰 죄이라도 받게 잡자기 위해 늙는 데는 여덟자 반이면 넉넉하고 아무리 좋은 전답이 일만 이랑이나 된다 해도 하루 두 되면 식량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본래의 원직을 버리고 부유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끝없는 욕망의 참회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우리는 슬한 시간에 걸쳐 아주 소중한 것에 있어서도 참지 못하고 벌컥 성을 내왔습니다. 아내와 남편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동료와 동료간에 사소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왔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나면 지니친 자존심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나하면 인간은 바로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자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진정한 참회는 남의 자존심을 존중하여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째,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대승정법, 참회게 수행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사ibi 종교라든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음도 어리석음입니다. 혹세무민 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자기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불법의 참진리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악참회를 통해 마음 속에 자리했던 온갖 죄거기를 말끔히 가세내는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빠져서서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원력입니다. 원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이 목적의식은 어찌된 참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bom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bom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bom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순수부 보살 삼녀). 홈페이지: bomstudio.com

불교설화 <5>

— 설악산 오세암

오세동자의 깨달음

『스님, 속히 고향으로 가 보세요. 어서요.』
설정 스님은 벌떡 일어났다. 캄캄한 방 안에서 형내를 뿐 아무도 없었다. 스님은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꿈을 꾸었음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오세공부를 타고 와 지구 흔들려 깨우던 이는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이상한 꿈이다 싶어 망설이던 설정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친 후 고향으로 향했다. 설악산에서 충청도 두메산골까지는 꼬박 사흘을 밤낮없이 걸어야 했다. 30여 년 만에 찾은 고향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근데, 작은덕 등 친척들이 살던 마을은 잡초만 무성할 뿐이었다. 스님은 괴이하다 싶어 어릴 때 살던 집을 찾았다. 꿈방이라도 자신의 숙명을 부르며 노부모님들이 쫓아 나오실 것만 같은데 인적이 없었다.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휩싸여 집안을 둘러봤다. 그리곤 어머니, 아버지, 형님을 불러왔으나 대꾸 대신 마루 틈에서 자란 밀과 보리씨만이 보였다. 스님은 조롱하듯 눈을 감았다.

『관세음보살님은 왜 고향엔 가보라고 하셨을까?』
그때였다. 아랫마을에 산다는 한 노인이 나타났다.

『허, 시주를 오신 모양인데 잘못 오셨소이다. 이 마을은 얼마 전 괴상한 병이 번져 모조리 폐죽음을 당하고 오직 한 사람 세 살 된 어린이가 살아있을 뿐이요.』

알고 보니 그 어린이는 설정 스님의 조카딸이 되었다.

설정 스님은 그 아이를 찾아 들에 업고 설악산으로 돌아왔다. 잘 키워 가문의 대(代)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영리했다. 산짐승 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다뤄주려와 장난도 하며 잘 지냈다. 스님 따라 조식 예불도 하고 염불도 곧잘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기는 다섯 살이 되어 제법 상투 구실까지 해냈다.

그 해 늦은 가을, 겨울살림 준비를 하던 설정 스님은 겨우내 먹을 식량을 구하려 설악산을 넘어 양양에 가야 했다.

위낙 없고 험한 길이라 조카를 업고 갈 수가 없었다.

충명하고 똑똑하지만 겨우 다섯 살밖에 안된 조카를 혼자 두고 나가자니 그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스님은 조카를 앉혀 놓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절대로 문밖을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무심거든 관세음보살을 의뢰라.』

조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목탁을 추켜들었다. 설정 스님은 몇 번을 단단히 이른 후 바람을 짚어지고 길을 떠났다.

걸음을 재촉한 스님이 숨을 몰아쉬며 양양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 식량을 구해 돌아가려니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다. 혼자 임자를 지키고 있을 조카를 생각하여 밤길을 떠나려 했으나 동네 사람들은 한사코 민류했다.

『험한 산길에 신진승도 많거나와 바람이 유난히 날카롭고 세차니 오늘밤은 쉬시고 내일 새벽 떠나십시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양양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른날 새벽길을 나서려 하니 반세도록 내린 눈이 지베에 닿기 쌓여 있었다.

마을이 이러하니 산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적설량 당기로 유명한 설악산은 눈이 내렸다 하면 열 길 두 손 길이라 이듬해 봄까지 퍽퍽딱딱 못하는 터다.

그러나 스님은 미친 듯 바람을 짚어진 채 문을 박차고 나섰다.

『스님 아니됩니다. 못 가십니다.』
『농오세요. 내 어찌 다섯 살짜리를 양자에 홀로 두고 그냥 있을 수 있겠소.』

스님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니 이 눈 속에 설악산을 넘는다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므로 마을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채 멍하니 설악산을 쳐다보았다. 그토록 아름답던 대청봉, 소청봉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눈 속에 묻힌 채 배고고 울고 있을 조카를 생각하면 그만 미칠 것만 같아 몇 번이고 설악산을 향해 치달렸지만 번번이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설정 스님은 자연의 섭리를 내다 보는 혜안이 없었음을 부추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스님은 그만 병석에 누웠다.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눕기 한 달. 신도들의 극진한 간호에 병세가 호전되면서 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한참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덧 설악산의 산이 변해갔다.

스님은 어디서 기운이 났는지 벌떡 일어났다. 마을 장정들이 스님을 부축하여 대청봉에 올라서니 저 아래 골짜기 관음암에서 이상한 서광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스님은 미친 듯 조카를 부르며 단숨에 산길을 달렸다. 암자에 당도해 보니, 법당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의우는 염불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다. 순간 관자가 오색 치맛자락을 끌며 밖으로 나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법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스님!』
반가움에 벉락같이 달려나와 안기는 조카의 모습에 스님은 그만 뒤로 물러섰다.

『아니 네가...』
『제가 왜? 스님 오시기만 기다리며 관세음보살을 의뢰더니 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돌봐주셨어요.』

설정 스님은 외락 조카를 껴안았다. 조카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설정 스님은 어찌나 감격했는지 그날로 암자 이름을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고쳤다. 다섯 살짜리가 자긴 암자라는 뜻뿐 아니라 동자는 그때 이미 불발을 깨쳤음을 시사하는 이름이다.

이해 고려말엽의 일이라 한다. 그 후 오세암은 수치의 중창을 거쳤으나 6·25동란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새로 지은 전각 몇 채만이 이 전설과 함께 남아 있다.



눈 속에 묻힌 채 배고고 울고 있을 조카를 생각하면 그만 미칠 것만 같아 몇 번이고 설악산을 향해 치달렸지만 번번이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생활속의 밀교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평안하고 행복한 날로 만드는 것은 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 스스로에게 달려 있고, 또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하루 동안 불쾌한 일들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하지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종일 불쾌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날이 되고 맙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도 불쾌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처리가 어려울지 쉬울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남에게 불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 나기도 전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부담치기도 전에 거의 밤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을 맞이하려고 애써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즐겨든 마음과 기분을 실어보도록 합시다.

멋진 아침식사, 온도가 적당한 샤워, 열띤 참가에서 내쉬는 깊은 숨 몇 모금 등을 생각으로 써 그대로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 하루는 마냥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즐거움은 일을 처리한 데서 오는 기쁨일 수 있고, 동료들과의 즐거운 대화나 재미있는 농담일

수도 있고, 일이 끝난 후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들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저녁에 흥미진진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즐거움과 승화시킬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이나 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나쁜 감정은 순전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즐거움과 슬픔, 불행함은 내 바깥, 외경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동요는 99%가 내 마음, 내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처리가 어려울지 쉬울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남에게 불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 나기도 전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부담치기도 전에 거의 밤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을 맞이하려고 애써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즐겨든 마음과 기분을 실어보도록 합시다.

멋진 아침식사, 온도가 적당한 샤워, 열띤 참가에서 내쉬는 깊은 숨 몇 모금 등을 생각으로 써 그대로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 하루는 마냥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즐거움은 일을 처리한 데서 오는 기쁨일 수 있고, 동료들과의 즐거운 대화나 재미있는 농담일

일에만 집중하면서 무엇이 그리 좋으니 계속 즐겁고, '참 기분이 좋다'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 나고, 이를 닦고 있는 것에도 '행복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 때 진정한 행복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늘 순간이므로 순간 순간이 즐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마니반떼술』 전연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과 진심, 욕망과 불행한 마음으로 염속하지 말고, 가슴 속 가득히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108 염주의 한 알 한 알에 담아 전연술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법정/통리원 교정부/법정원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말과 뜻으로 악한 마음을 없애기

로 힘써야 한다. 그것은 7일 정진은 신구의 삼업을 끊어 없애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7일 불공 중에는 4일 고개와 있고, 삼칠불공 중에는 열하루 고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때에는 미리 회사법과 염속정진법을 더 세워서 사전에 덕을 짓으며, 마작이 틀려라도 더 이상 걸리지 않도록 속히 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일 불공 중에는 4일 고개와 있고, 삼칠불공 중에는 열하루 고개

월초불공 잘 지키는 법

있으며, 칠칠불공(49일)에는 이십 오일 고개와 있고, 백칠불공에는 육순고개와 있으며, 백칠수행에는 4년 고개와 있다. 그 고개란 바로 번뇌와 장애 등의 마장을 말

하는 법수인 까닭이다. 즉, 7일간의 정진 공력으로 일체중생들이 모두 탐·진·치를 버리실므로 회향토록 하는데 있다.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두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기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내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인력을 얻게 되는 공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 데 알일이 되도록 도파주는 범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작주로서 몸에 지내는 것으로도 정진이 안되어서 모든 행과동이 보가만 하더라도 도망처럼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니게 되어,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천은사 염주

알이 등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축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란,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슴치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대나무꽃도 더불어 상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축 54과 염주 ₩20,000

총지 문예사랑



안성민
등해중 1학년 4번

형이 까만 표지로 된 두 권의 책을 맡음이 내일였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KBS 대하드라마(이순신)의 원작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내가 독서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은 형의 눈빛과 비참한 제목에서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칼, 무사들이 휘두르는 칼, 적을 향해 핏빛을 보아아하는 칼의 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왜군의 칼날과 조정의 칼날에 맞서 자기 자신이 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칼의 노래

리를 찾는 이순신 장군의 절망이었습니니다. 나는 그 절망이 정의와 사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이순신과는 다른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은 허구성이 강하다고 이미 배워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니 나 자신은 사실인양, 진실인양 역사의 흐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사실적 표현에 몰입해져서 그 앞에서 적 앞에서 이순신의 활개와 적을 포위하고, 작전 지휘하는 장군의 용맹성에 감탄하기도 하였고, 굶주리고 병든 군졸을 데리고 적을 공격할 계획에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부하들을 지휘하며 수많은 부하를 눈앞에

서 잃고 수많은 적도 눈앞에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눈물도 흘렸습니다.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일지진으로 적을 막는 전술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 하기도 하였지만 장군은 역사상 유래 없는 대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를 따내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내 어릴 적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그저 훌륭한 분이었지만 이 칼의 노래에 존재하는 이순신은 나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결전의 날 이순신 장군은 대 장정에 올라 노랑대전에 이르렀습니니다. 노랑이라는 단어를 이미 접해왔기에 이 마지막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고 심한 마음의 울렁거림을 느꼈습니니다.

이순신 장군의 큰 외침이 들려옵니다. 동 동 동 적군의 배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왜

군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 한마디가 내에게는 이 소설의 핵심 구절이었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나라사랑 정신이 한 구절로 압축되어 나의 가슴 속에 화살처럼 깊게 박혔습니니다.

부모님과 순천만, 광양만, 통영 등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동상 앞에서 참배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소설의 배경도 내가 둘러본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가 그대로 나와 더 실감이 났고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용맹하게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실제 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욱 감명 깊게 읽어 나갔습니니다. 한 동안 나도 훌륭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생활요가



박쥐자세



1. 양 다리 벌리고 양 손 등 뒤 바닥 짚어 밀어주면서 척추 뿌리부터 펴고 앉아줍니다.
2. 상체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끝 잡고 등을 쪽 펴고 내려갑니다.
3. 서서히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자국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주고 다시 발끝 잡고 옆으로 기울입니다.
4. 서서히 풀어서 자국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주고 정면 앞으로 내려갑니다.
5. 좌우로 기울여서 풀어주고 정면 앞으로 척추 뿌리부터 쪽 펴면서 내려갑니다.
6. 서서히 돌아와 양 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쉬어줍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북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저 / 운주사 / 정가 9,800원
불자들을 위한 자녀 교육 지침서. 자녀 교육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교

사로 재직 중인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이론도 녹아 있다. (아이들을 향한 폭력), (마음이 안정되는 말), (늦잡지는 아이), (흔치, 필요하기), (잘못 다는 안 된다), (낡은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등을 수록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가치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자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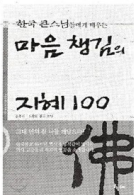
이연정 저 / 민중사 / 정가 12,000원
21세기를 살아가는 스님 33인의 이야기!

월간 '해인'의 <호계삼소(虎溪三笑)>에 연재한 스님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

21세기를 살아가는 스님 33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님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평범하며 진실하고 솔직한 이야기에서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하지도 않는 스님들의 삶을 통해 불교를 알고, 내 삶을 되돌아 보도록 이끌고 있다.

가치인 저자가 만난 스님들 중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행자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스님들도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스님들의 모습도 맛깔스럽게 담아내 스님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졌고, 불교가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광 스님, 혜능 스님, 현장 스님, 정병 스님, 원각 스님 등의 인터뷰를 담았다.

마음챙김의 지혜



홍윤식 저 / 불향동래 / 정가 15,000원
한국 큰스님들에게서 마음챙김의 지혜 100가지를 얻어낸 책. 삼국시대부터 대승적 이념을 표방해온 한국 불교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풍성하게 했으며, 일제 중생이 각성하고 참된 자비를 되찾아야 하며, 혼자 가지 말고 함께가자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새겨졌다.

이 책은 그러한 한국불교 1600년 역사를 만들어온 큰스님들의 법문 중 불

교의 핵심인 '자신 안에 있는 참나, 즉 불성을 깨닫는 방법'에 대한 사자후 100가지를 번역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역대 고승들이 전하는 견성見性에 이르는 길, 각박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텀플스테이 등에 참가하는 일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파워, 에너지 발견하기 위한 동서양 현자들의 책들이 인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마리수나, 라마나 마하르시, 오쇼 라즈니쉬, 달라이라마, 티벳한 등이 최고인 것이다.

불교우화



히로 사치야 저/김활란 역 / 행간풍경 / 정가 9,500원
<불교우화>는 불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일본 유명인 종교평론가 히로 사치야가 우화의 형식에 담아낸 책이다.

(불교우화)는 부처가 전생에 어떤 동물로 태어나 어떤 삶을 영위했는지 상상할 경험 (자타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전에서 발췌한 불교우화들을 소개함으로써 우화의 힘을 빌려 불교적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각 우화의 의미를 현대인의 삶 속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지 질문하고 답함으로써 우화 속의 숨겨진 지혜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구리가 창성을 한다



황명찬 저 / 지혜의나무 / 정가 9,800원
건국대학교 교수 황명찬의 '개구리가 창성을 한다', 30대 말부터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즐겁게 사는 길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있다고 믿고 불교에 의지하며 살아온 저자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터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다. 아울러 선지식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 자녀와 이웃, 그리고 자연 등임을 강조한다.

여러 경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좋은 경구들을 예로 들며 풀어주는 저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이야기들은 선지식들로 다가가 독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문답과 경전속의 진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법에 빠져들고 어렵던 불교가 소름소름 마음에 와 닿게 한다.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불교를 이해하고, 믿으면 좋을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책"

30여 년간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며 불교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글들을 가려워어 인생을 사는 데 지혜와 믿음을, 그리고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침서이다.

이 책의 제목이 상징하는 것은 책의 내용이라기보다 하찮은 것이라도 내 마음이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곧 슬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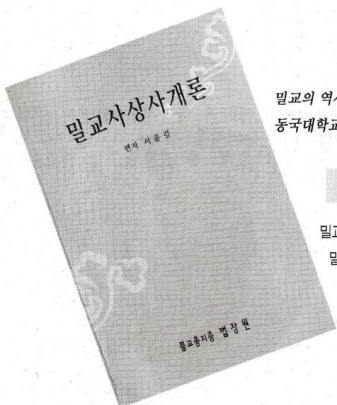
주의하세요

많이 내려가려고 하기보다 등을 펴 쪽 뺀고 무릎 펴서 다리를 뻗어줍니다. 통증이 심한 동작이기 때문에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서서히 풀어야 합니다.

여기가 좋아져요

1. 박쥐자세에서 상체 틀어 굽히는 앞으로 굽히기의 효과, 상체 기울어지는 옆으로 기울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따라서 척추를 풀어주고 복부를 자극함으로써 전체 순환을 좋게 하고 내장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비만을 해소해 줍니다.
3. 상체 정면으로 굽히는 내비자세의 효과를 지녀서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하복부의 난소, 자궁 등의 여성기관을 건강하게 해 줘서 임마들에게 내비자세와 더불어 절대 필요한 동작입니다.
4. 골반의 유연성을 높여 줍니다.
5. 간장, 신장, 쓸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특히 간염 등 간기능 회복에 좋습니다.
6. 다리 안쪽과 뒤쪽 근육을 늘려 주어서 튼튼하게 만들고 다리의 균형을 없애줍니다.
7.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나거나, 걸거나 서 있으면 발바닥이 아프고 열이 나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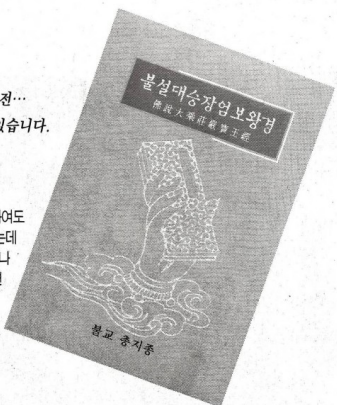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의 원당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유포니만해후)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배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나누는 마음, 아름다운 세상”

BBS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 공개방송



◇권양숙 여사가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방송' 축하 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 공개방송이 11월 6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렸다.

'나누는 마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상벽씨와 지연 스님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공개방송에는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석, 축사를 통해 논의를 곁들였다. 600회 특집방송에도 동참했던 권여사는 "다시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거룩한 만남이 부처님의 자비와 교생의 참 뜻을 널리 알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이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도 참석해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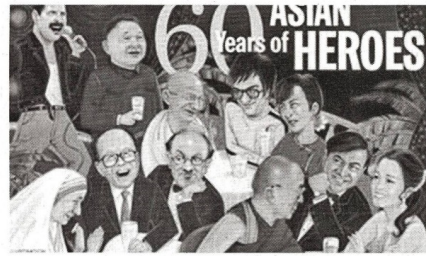
2부에서는 각종 시상과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자리와 마련돼 9명의 자원봉사자 시상에서 이어 후손 가족들의 영상 상영과 함께 10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축하공연에서는 불교방송 가요행사가 합창단, 발성 스님, 국악인 신영희씨 등이 함께 했다.

'거룩한 만남'은 불교방송의 대표적인 이웃돕기 프로그램으로 1991년 4월 5일 첫 방송 이래 16년 간 총 41억여원의 성금을 모아 수혜자에게 전달했다. 방송 100회 단위의 특집 모금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해온 점 등을 인정받아 한국방송대상 2회 수상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

타임誌, 아시아의 영웅에 달라이라마 선정

“인류의 등대,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타임지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타임지 아시아판 최신호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3일 발행한 '아시아의 영웅 60년'이라는 특집판에서 달라이라마를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 65명 중 한명으로 선별했다. 타임지는 발간에 앞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들

을 선정했다"며 "이번 특별판을 통해 선정된 인물들은 이 시대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만한 남성과 여성들로 깊은 찬사를 보내고"고 밝혔다. 달라이라마의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아시아와 세계 인류에게 등대이자 피뢰침 같은 존재로 가장 훌륭한 정신

적 지도자"라면서 "특히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각처에 불교를 알리는 등대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 외에 선정된 영웅으로는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 아시아 최대 부호 리카싱 청공실업 회장, 콩후 스타 이소룡(李少龍), 야후 창업자 재리 양(楊致遠) 등이 아시아의 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또 리관 유 전 싱가포르 총리, 일본 프로 야구 스타 오 사다하루(王貞治), 미얀마 정치인 아웅산 수지 여사,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테레사 수녀 등도 포함됐다. 한국에서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 탈북자 출신 김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승가대 단식 기도 중단

11월 15일, 봉은사 보우당서 회향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재정지원사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9일부터 단식 및 기도를 해왔던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11월 1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단식정진을 회향했다. 중앙승가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각명·법공) 대변인 해관 스님은 "장시간 기도 및 단식으로 학인 다수가 탈진 상

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종단에서도 문화재관람료 손실액을 보전하겠다는 등의 재정지원 노력이 보여 11월 15일 오전 9시 보우당에서 회향법회를 하기로 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해관 스님은 또 "봉은사 신임 주지 명진 스님도 봉은사를 양명하게 운영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중앙승가대를 지원하겠

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엔 중앙승가대가 봉은사를 재정지원 사찰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참회정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11월 8일 기자 정혜리핑을 통해 "반승가적이며 불화합적인 행동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엔 "1996년 중앙승가대가 개원한 후 경성비만 124억4천만 원을 지원한 등 종단 내 다른 기본교육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종단의 각별한 관심과 종단 예산의 많은 부분이 중앙승가대학교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 동문과 학인들이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재정지원 사찰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은 종단 회계단일화 원칙과 종단 기본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기본교육과정 중인 예비승가지 동원하는 비교육적 자기모순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 17주년 축하 법회.

불교인권위원회 제17주년 기념법회

불교 인권회복 운동 전개기로

불교인권위원회 제17주년 기념법회 및 제12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렸다. 불교인권상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수상했으며, 부산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황정스님이 공로패를 받았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양시에 따른 방역거부권 실현 및 대채복제도 개선 등의 노력, 황정스님은 올해 9월 남북 후송

피해 희생자의 위령대재를 병행하고 북측에 옷 1만200여 점을 전달한 공로가 각각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부 불교인권위원회 제17주년 창립법회, 2부 제 12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3부 출판기념식 순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 이인제 국회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력

내년 정책사업 3개년 10억 투자 청사진 발표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11월 11일 열린 어린이포교전진대회에서 '어린이포교비전선포'를 통해 종단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한편,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전담팀(팀장 김병주)에서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관 총무원장 스님은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무엇보다 친체된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향후 3년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포교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포교 지도자 양성과 교재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우선 3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어린이 포교 예산이 대폭 증가된다. 올해 예비비 가운데 1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에는 5억원, 2008년에는 4억원 등 3개년에 걸쳐 10억원의 예산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반영한다. 반영 및

사찰예산책정 등 강제로 있는 방법을 동원해 차기연에 정착여부를 감사할 방침이다

동대 불교방송 교류협력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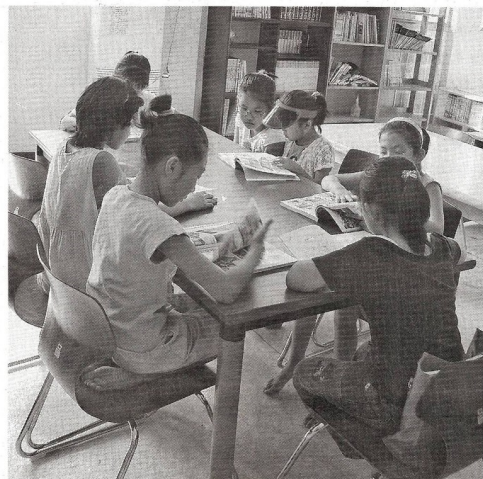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총장 홍기삼)는 11월 16일 불교방송(사장 홍승기)과 학술·문화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교류협력사업은 동국대학교 측에서 불교방송 임직원에게 위탁교육을 제공하고, 동국대 재학생들은 불교방송에서 인턴십 및 과외활동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턴십 연수생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며, 현장실습 학생으로 최대15학점까지 인정된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협약된 상호협력 분야는 △불교방송 임직원 위탁교육 △동국대 학생 인턴십 및 과외활동(부업 등) △출판물 등의 학술정보 교환 △특별강좌, 성지순례 등의 불교문화 사업 △영상문화 관련 사업 △시설물 및 기자재 사용 등이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레크리도
- 4시~5시 : 책오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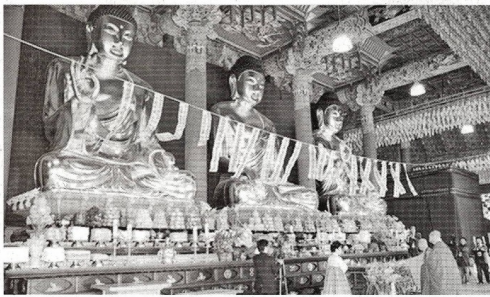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동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애 : 010-3913-6352, 이예숙 : 010-4737-9321

교계소식

조계사 대응전에 삼존불 봉안 "사격에 걸맞는 장엄한 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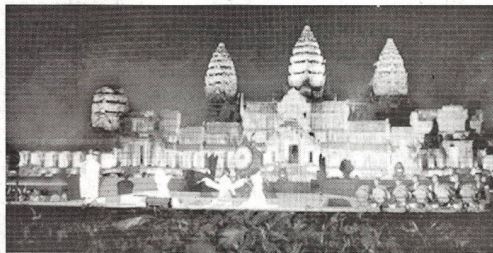
◇불교 일인지 조계사가 대응전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주지 원담)가 대응전에 삼존불을 모시고 봉안법회를 가졌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약사여래불(좌)과 아미타여래불(우)을 협시한 삼존불은 불교 1번지 조계사 사격에 걸맞게 큰 규모와 장엄한 자태를 뽐냈다. 조계사는 지난 11월 14일 1천여 명이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대응전 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봉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원로회의 수석부회장 지혜·차석부회장 보성스님을 비롯해 보전·지중·원평·동춘·진재·초우·해정스님 등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조계사에는 영하의 체감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의 신도들이 모

여 자리를 지켰다. 조계종 원로회의 차석부회장 보성스님은 봉안식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조계사 삼존불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불자들의 지극한 발원으로 새 부처님을 모실 수 있게 됐다"며 "대장불사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 드린다"고 치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치사를 통해 "가운데 석가모니불은 사바세계의 교주이시며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계시며 증상을 인도하는 부처님이요 약사여래불은 중생의 병고를 치유해주는 부처님이니 이 기도도량에서 기도하면 새 부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사 주지 원담스님은 "조계사 삼존불 봉안에 힘을 모아주시는 종중여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인연공덕으로 모두 정진해 온 정도가 불국토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식은 봉안식에 이어 한공의식으로 이어졌다. 스님들은 차례로 법당에 헌화하며 예를 올렸다. 원로위원 스님들은 봉안식에 앞서 직접 삼존불에 점안을 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한편 모든 의식이 끝난 후에는 1천여 명의 불자들이 삼존불 친견을 위해 대응전 앞에 길게 줄을 서 행렬하는 진경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안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 - 오래된 미래, 동양의 신비



◇세계문화 엑스포에서 화려한 영상화면이 펼쳐지고 있다.

안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동조직위원장 김광용) 2006년 내년 1월 9일까지 캄보디아 안코르 유적지에서 펼쳐진다.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제로 열리는 안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세계 30여 개국이 참가하고 전시와 공연, 3D영상 등 풍성한 행사로 관람객 유치에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 기간 중 자 400여 평 규모로 마련된 한국문화관과 캄보디아문화관에서는 '한국 이미지전'과 '크메르 문화전'이 열려 신라의 황금문화, 한글 및 안코르문명 유물 등이 전시된다. 또 세계 각국의 살아있는 공연예술이 선보일 '세계공연예술축제'에서는 한국의 판타지극, 고성오광대보존회 등이 출연한다. 3D애니메이션으로 '천마의 꿈-화랑영웅 기파랑전'과 캄보디아의 '위대한 황제'가 매일 5회씩 교대 상영되며, 앙드레김 패션쇼 및 한국-캄보디아 전통의상쇼, 민속놀이마당, 국제

동국대 서운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헌정 "따뜻한 삶, 실천하는 삶 살것"



◇동국대 서운길 교수

의 연구성과물을 한데 모아 제자들이 펴낸 '한국법고사상사' 논문집 봉정에 이어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동국대와의 인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에도 동국대

밀교학자 은곡 서운길 동국대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헌정식이 11월 13일 서울 영배 서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서운길 교수의 연구성과물을 한데 모아 제자들이 펴낸 '한국법고사상사' 논문집 봉정에 이어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동국대와의 인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에도 동국대

김병식 부총장, 조계종 전 총회의장 율탄 스님, 동국대 전 이사장 현해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일민 스님, 목정배 명예교수, 총지중 통리원 법경정사, 등 사부대중이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서운길 교수는 답사를 통해 "이제는 더불어 살고, 따뜻한 삶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이라며 "제자들에게 들려주기만 하는 교육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운길 교수는 1974년부터 32년 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불교학계의 불모지였던 밀교학을 연구해왔으며,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성불자의 역할' 국제학술대회 내년 독일 함부르크서

독일 함부르크 불교연구재단이 오는 2007년 7월18일부터 20일까지 함부르크에서 여성불자들과 비구니 스님들의 전통계승 복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티베트에 남아있는 무라사비스티 바다 비구니 전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디스트채널은 "독일 불교연구재단과 함부르크 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협회(AAL)가 공동으로 '승가 속 여성불자들의 권리와 비구니 스님들의 전통계승 복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최근 전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티베트에 남아있는 무라사비스티 바다 비구니 전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디스트채널은 "오직 달마굽타 비니이 전통이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에 남아있다"며 "달라 이마가 1987년에 추창한 것처럼 무라사비스티바다 복원 등 비구니 스님들의 전통계승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언론은 "현재 세계 각처에 13만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표 다이제스트

▶새내기 생선급기

- 1.먼저 생선을 꾸깃호일에 충분히 갈낸다.
2.요술냄비(그냥 후라이팬도 가능한 단 무당이 있어만함)에 넣는다.
3.뚜껑을 닫는다.
4.약한불로 충분히 굽는다.(뒤집어 가며)
소요되는시간:20분정도

▶고기를 연하게 하려면

- 술을 조금 넣는다.
알코올에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고기를 찐다든가 졸 요리 등을 할 때 술을 조금 넣으면 고기가 한결 연해진다.
이때 사용하는 술은 청주나 포도주같이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것을 써야 효과가 좋다.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을 쓰면 쓴맛이 배어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생선을 비린내 없이 보관하기

- 아무리 신선한 생선이라도 손질하지 않으면 비린내가 난다.
구입 즉시 창자와 아가미 등을 뺀 다음 미지근하게 흐르는 물에서 빨리 피를 씻어내고 다시 바닷물보다 약간 짙은 소금물에 창자 부분을 약간 씻는다.
냉동의 경우엔 특히 물기를 잘 닦아야 한다. 물기를 종이타올 등으로 잘 닦은 후, 랩에 싸고 다시 폴리백에 넣어 냉동한다. 금방 먹는 생선은 손질법은 같다.

▶과자의 눅눅함을 제거하려면

- 먹다 남은 과자를 보관할 때, 보관하는 병이나 진공 팩에 각실한 한개를 같이 넣어주면 각실타입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과자가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달걀 안까지 삶으려면?

- 달걀을 찌다보면 때로 겹질이 터져 달걀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
달걀 겹질이 터지는 것은 쪄는 과정에서 달걀이 그릇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냉각도 속에 넣어뒀던 달걀을 갑자기 뜨거운 물 속에 넣을 때 겹질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 때 끓는 물에다 소금을 약간 넣거나 식초를 서너방울 떨어뜨리면 달걀이 깨져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대로 잘 찌진다.

자재공덕회, 印尼에 불교TV 시험방송 이슬람 최초, 내년 2월 정규방송 시행

대만의 국제불교자선단체인 '자재공덕회(Tzu Chi Foundation)'가 이슬람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불교 TV 방송국을 개국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자재공덕회 소속 '다이이(大愛) TV'의 케 추안푸 대변인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다이이 TV 개국을 위한 TV방송국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이이 TV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이(DAD)TV'로 명칭되며, 지난 10월부터 인도네시아 언어로 매일 1시간씩 시험방송을 시작해 내년 2월경에는 정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이이TV측은 "내년 2월부터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종일 방송을 시작하며 자카르타와 메단지역의 2000만 가구에 송출하고 앞으로 수라바야와

반중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이이TV는 정치뉴스를 자제하는 대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인도네시아 인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재공덕회의 노력 등을 보도할 예정이다. 방송 프로그램은 대만현지에서 제작되어 인도네시아어로 더빙된다. 자재공덕회는 '대만의 마더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행연(88) 스님이 1966년 설립한 불교단체로, 전 세계 28개국에 수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홍수, 지진, 태풍 등의 타격을 입은 세계 각국에 후원금과 구제물자를 지원해왔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애마을을 중국 이란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 짓기도 했다.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김규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원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일과과장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전통사찰 문화탐방

관음 국제선원의 산실 -서울 화계사



화려한 단풍이 고운 늦은 가을! 단풍의 화려한 옷자락에 이끌림과 울긋불긋한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주르르 흐를 것만 같은 정취에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추운 날씨의 등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더니 오늘은 따스한 햇살이 오는 나그네를 환영하듯 반갑게 맞이해 준다.

반가운 사람들은 만나면 만남수록 반가움이 더하듯이 부처님의 정법도량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 2번을 타고 10분 정도 달려가니 화계사 안내표시판이 나온다. 화계사 정류장에서 내려 5분 정도 비탈길을 올라가니 암쪽 옆으로 웅기종기 작은 단독주택들이 산재해 있고 일주문 바로 앞에는 화계중학교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득히 들려오는 독경소리가 낭랑하게 들리고, 외국인 스님들이 사찰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며 외국인 스님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인

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가 싶더니 어느새 발걸음은 화계사 대적광전 앞까지 다다랐다.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3층의 대적광전에서 들리는 예불소리가 아름다운 물줄기를 타고 산자락을 따라 흐른다.

화계사(華溪寺)는 백운대·만경봉·동장대가 위치한 삼각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산수가 수려하고 산기슭의 울창한 숲에 감싸여 있어 시내의 번잡함을 잊게하는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다.

화계사는 원래 부처동에 보덕암이라는 암자였으며, 현재 화계사 자리로 이전 하여 조선 중종 17년(1523년)에 신월대사가 창건하였다. 광해군 10년인 1618년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다음 해에 도월스님에 의해 중건되었다.

대웅전은 1866년 용선스님과 범운스님이 지은 건물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왕은 특히 유명하다. 또한 규모가 작고 오래되었지만 내부현장 장식이나 건축 장식들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대원군과 신한호의 필적도 남아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원정사목조지장보살좌상(서울시유형문화재136호)은 조선왕조 때 국태민안을 빌던 왕가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 궁궐이라고 불려질 정도였다. 또한, 이곳 끝까지 있는 오탁전암수로 대원군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절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원군의 글씨를 비롯해서 그외의 인연이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계사는 승산스님에 의해 시작된 관음국제선원의 산실로서 외국인 승려들과 불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에 둘러싸여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

국제선원에서는 매주 일요일 영외화화 강습과 영외 참선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대적광전에서는 신도들을 위해 일요일 오후에 수선회에서 참선법회를 진행하고, 선우회에서 매주 토요일만 철야 참선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대적광전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니 대법당이 나온다. 대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성취와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불공을 올리고 있다.

대적광전 뒤로 올라서니 오백나한전과 대웅전, 명부전, 칠성각이 모여 있고, 골짜기에서는 울줄줄 떨어 머리에 이고 화계사 경내를 거닐고 있으니, 온 세상이 부처님의 세상, 삼과 번뇌의 순간을 잊은 듯 무상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행복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벽안의 수행자들의 모습을 상기하며 일주문을 나선다.



총지종의 불단 중앙에 음미반메혹의 본존과 오른쪽은 종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고 생명의 성장과 탄생을 의미하는 태장계만다라, 왼쪽은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금강계만다라.

불교총지종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음미반메혹의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영승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엄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사찰음식 ⑫

▶시래기찌개



재료
무우청 시래기 삶은 것 200g, 산사 원장 3큰술, 쌀뜨물 3컵, 식용유, 고춧가루

만드는 법
①말린 시래기는 전날 꼭 삶아서 물에 담가 놓는다.
②삶은 시래기를 10cm 정도의 길이로 준비하여 된장고 식용유, 고춧가루를 넣고 바라바라
③주물러 양념이 골고루 배어줄게 한다.
④약 1시간 정도 재워 놓았다가 쌀뜨물이 나 다시물을 붓고 끓인다.
⑤약한 불에 서서히 끓여서 시래기가 푹 무르도록 끓인다.

▶포인트

①마지막 같은 산사 간장으로 한다.
②무 시래기는 그냥 무청보다 비타민 A.C, 칼슘 등이 훨씬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김장아찌



재료
김 2쪽, 잔 반 컵, 진간장 반 컵, 물엿 4큰술, 다시마 1장, 고춧가루 2큰술, 통깨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2큰술

만드는 법
①김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는다.
②냄비에 진간장과 물엿, 물, 다시마를 넣고 너무 짜지 않게 끓인다.
③끓어서 식힌 간장에 고춧가루와 통깨, 설탕, 참기름, 맛을 골고루 다져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④잘라 놓은 김을 양념장 속에 담백 적셔서 반찬통에 차곡차곡 재어 놓는다.
⑤두어 시간 뒤에 다른 통에 옮기면서 뒤집어 놓는다.

▶마른미역볶음조림



재료
마른미역 100g, 진간장 1큰술, 물엿 3큰술, 설탕 1큰술, 식용유 5큰술, 통깨 1큰술, 물 1/2 컵

만드는 법
①마른미역을 돌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5-6cm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는다.
②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중불에서 튀겨내듯 볶는다.
③미역이 파릇파릇하게 튀겨졌으면 불을 줄이고 진간장, 물엿, 물을 넉넉히 넣고 졸인다.
④물이 적으면 질겨지지니 미역에 물기를 촉촉히 먹음 정도로 볶은 다음 설탕을 넣어 단맛을 살린다.
⑤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불을 끄고 통깨와 참기름을 두른다.

▶우영양념찜



재료
우영 중간 것 2개,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1큰술, 설탕 1큰술, 진간장 2큰술, 물엿 2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만드는 법
①우영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 찜기에 넣어 찜는다.
②너무 많이 익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 찜된 우영은 도마에 펴놓은 다음 칼등으로 두드려 찜는다.
③진간장에 위의 양념을 다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너무 짜지 않게 한다.)
④두드려서 얇게 만들어 놓은 우영에 양념장을 펴서 바른다.
⑤양념장 바른 우영을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찜는다.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 수륙공 천도제 봉행

“순국선열 기리는 국가적 문화축제”



총지종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이 팔관회 및 수륙공 천도제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 불교연합회(회장 대상)는 지난 10월 29일, 30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제7회 팔관회 및 수륙공 천도제를 봉행했다. 한반도 평화와 부산발전을 기원하며 봉행된 팔관회는 29일 식전행사에 이어 2부로 팔관제계를 받는 팔관회 법회가 봉행됐다. 전체대화상 고산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고불문을 통해 “팔관회의 장엄함과 불보살의 원력으로 일심 정진하여 부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상 스님은 대회사에서 “팔관회는 팔제계를 기리는 불교적 의미외에도

순국선열들에게 제를 올리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 축제”라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잘 계승해 지극한 정성으로 팔관회를 봉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팔제계 수계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8가지를 막고 금한다는 팔제계를 받아 지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 “고난과 행복을 스스로의 정진으로 개척해 나가는 불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한편 이날 부산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쌀 1kg 포대 200개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통해 부산 지역 20개 복지관에 전달돼 불자들의 이웃 사랑을 전했다.

하 일동의 주관으로 수륙공 천도제가 봉행됐으며 설운도, 함중아, 불교전문밴드 해조음 등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총지종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은 이날 법회에서 축하 음성공양을 올렸다.

불교방송 가톨릭가 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가톨릭가 합창단 단원들이 '선녀와 나무꾼' 오페라 곡을 선보이고 있다.

불교방송 가톨릭가 합창단이 겨울의 문턱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불교방송 개국 16주년 및 가톨릭가 합창단 창단 11주년을 맞아 특별히 운문스님이 곡을 쓴 '아미타불'과 동화 '선녀와 나무꾼' (반영규 작사/정부기 작곡)을 뮤지컬로 각색했다.

여성 3부 합창단 총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가톨릭가 합창단은 1부 '아미타불'에서 열불송 및 수행의 노래·육바라미·백팔염부·불국토 찬양 노래 등을, 2부 '선녀와 나무꾼'에서는 드라마틱한 오페라 곡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불교총지종 조경숙 보살이 일원으로 출연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신행체험 35

총지종과의 인연을 시작하며



윤우초 교수 (트리원)

을 습관적으로 뒤적이다가 문득 총지종에 눈길이 갔다. 신행관련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용이 자못 감동적이었다. 그후 종종 총지종보를 열람하며 종단에 관심

이 외워질만큼 친숙해졌다. 그만큼 안정감도 생기는 듯하다. 일반업무와 병행해 월초불공과 자살일 등 정례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불공시간 중에 참회와 서원, 진언, 찬불가가 적절히 배합된 봉사법요를 하느라 어느새 심신이 경이로 진다. 실천서원회와 오대서원, 공공서원, 개인서원으로 이어지는 발원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이어서 기도 집중에 효과적이다. 얼마전 월초불공 기간에 맞춰 7일간의 합숙교육이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지는 사본정진과 운역, 강 등의 빈틈없이 짜여진 일과를 하며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진언염송으로 입장소멸, 지혜증득 발원

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총지종에 담담해 되었다. 나는 첫 직장부터 지금까지 불교계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절이나 염불, 참선 같은 여러 불교 수행법을 접해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관음성왕을 해 온 터라 간혹 육자진언을 해보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삼밀관행 진언수행은 새로운 체험이었다. 그동안 여러 수행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었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선 총지종 진언수행법과 인연이 내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길을 걸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육자진언

불공의식과 업무를 익히고, 사람들과 좀더 가까이 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어름에 갔었던 괴산 수련원에서 본 반딧불이와 단풍이 짙게 물든 백양사에서 보았던 흰안(?)도 오래 남을 기억이 될 것이다. 총지종에 근무하게 된 지 벌써 두 계절이 지나고 있다. 뭐라고 언설하기는 어려우나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나를 느낀다. 대개의 수행이 다 그렇듯이나 육자진언 수행이 내 업을 맑히고, 의식을 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젠가 될 지 모르나 진언수행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밝은 지혜 연기를 발원해 본다.

망각과 세상

그해 여름 부처님은 베살리의 벨루바 마을에서 마지막 여름 안거를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부처님은 중병에 걸려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사자인 아난다가 부처님을 찾아와 문안을 여쭈었다. “부처님, 오늘은 매우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동안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시다. 부처님이 저희들을 위해 아무 말씀도 없이 열반에 들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난다야 그대들은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진리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며 더 이상 감춰둔 아무 것도 없느니라.....아난다야, 나는 이제 모든 살아다. 몸은 늙고 쇠약해졌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갠신히 굴러가는 것과 같다.....아난다야,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

나의 행복한 불교 공부

지처로 삼으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등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야함(유형경)의 한 대목이다. 나는 지금도 이 경을 읽다보면 어느새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가가 빠근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죽음을 앞둔 80대인이 나이트 제자들이 그대도 못이더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타일러는 모습.....그 장면은 언제 떠올려도 감동적이다. 부처님, 그분은 나에게 그런 존재다. 의탁된 말이지만 얽힌 스승이면서 또 한 자상한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다. 선문의 선사들은 부처님 마흔 풍막 대기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집착이나

고 할 수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불타관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아주 가까운 인간으로서의 스승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두분 스승을 통해서였다. 한 분은 대학 때 불교개론을 가르쳤던 홍정식 박사 그리고 또 한 분은 한번도 빌 일이 없던 책을 통해 깨우침을 준 일민박사 마즈다니 후미오 박사.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불교는 전통적으로 대승불교를 신봉해왔다. 대승불교에서 붓다는 초월적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다. 길흉화복을 호소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다. 그런 붓다를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점은 나에게 도무지 이해

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인간의 아들이 태어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었다면 그는 결코 신이 아니다. 그런 데도 사람들은 붓다를 마치 전능한 신처럼 믿는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어느 날 이런 의문을 토로한 나에게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건 아마도 위대한 인격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게야. 위대한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스승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보니 전설을 만들어간 게지.” 그러면서 읽으라고 권한 책이 그 무렵 번역돼 나오기 시작한 한글대장경의 장야함(유형경)이었다. 붓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경은 스승인 붓다에 대한 제자들의 존경과 제자들에게 대한 부처님의 재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구나. 노년에는 병이 들어 제자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걸던 분이었구나... 그것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갖는 흥분이다. 법당 안 높은 자리에 권위와 우상으로 앉아 있는 먼 나라에서 온 손님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홍정식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오해를 씻어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마즈다니 박사와의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마즈다니 박사의 불교관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박사와의 만남은 그가 쓴 (아함경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박사는 이 책에서 한마디로 부처님도 인간이며 그분이 가르친 내용도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었다. 나는 박사의 이런 주장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그때, 그것은 문명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다. 이때부터 나의 불교공부는 대승불교가 아니라 초기불교, 그것도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불교를 화두로 삼아나가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

런지만 대승불교가 전부인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스승의 길’을 가졌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이 취할 태도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 무렵 막 번역돼 나오기 시작한 (법구경) (수타니파타) 그리고 사부아함을 받을 새우며 통독했다. 덕분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불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책도 쓰게 됐다. 지금 생각해도 이 때의 일을 참으로 다행하고 행복한 인연이었다. 나는 지금도 누가 불교공부를 하라고 하면 초기불교부터 공부하라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행복한 불교공부였기 때문이다. 홍사성의 불교사랑 (cafe.daum.net/hongsasung) 중에서

다 향

茶香의 향기를 찾아서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여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작설), 보이차, 소롱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총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부산 덕화사 헌공불사 이모저모



“미래세가 다하도록 불법 인연처 되라”



불교 총지종 호강 종령예허 헌공사.



대지 296평, 연건평 343평 불교전통건축축양식의 덕화사 외경.



미래한 본존과 불단.



부산 경남 교구의 육법공양.



공양처에서의 법회 시청.

이 전당이 자재원만하신 법신들의 도량으로,
또한 금강법계궁의 도량으로,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전당으로,
일체 유정들의 복덕의 원천으로,
그리고 고해중생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 되길⁰⁰⁰



중단교유양식의 아자관과 만다라로 장엄한 덕화사 서원당.



덕화사 주교 대원 정사.



절 마당에 운집한 사부대중.



내외귀빈 본존제막 순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의 헌공불사 모습.